

『闡義昭鑑』의 간행과 서지적 특성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부교수, 고문헌관리학 전공

gabinja@aks.ac.kr

I. 머리말

II. 『천의소감』의 간행과정과 편집체제

III. 『천의소감』 및 언해본의 현전본과 서지적 특성

IV. 맷음말

I. 머리말

한국의 출판문화사에서 영조를 포함하는 18세기는 매우 의미 있는 시기이다. 새롭게 금속활자를 주조하거나 전해진 활자로 수많은 책을 출판하였으며, 인쇄물은 정형화된 판각과 지질(紙質) 등으로 조선 출판문화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또한 이 당시 만들어진 서적은 상당수가 조선말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선초기에 성립되어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인쇄문화의 전형이 이 시기에 재정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간행된 서적 중에는 이전에 인쇄된 서적을 그대로 번각(饒刻)한 것도 있으며, 판식이나 서체 등에 큰 변화 없이 이어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높은 수준을 보이는 서적들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왕의 지시에 의해 관찬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중 상당수가 재위기간이 길고 서적의 편찬과 간행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영조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영조는 숙종의 아들로 1699년 연잉군에 봉해졌고, 1721년 왕세제에 봉해졌다. 세제 시절 영조를 뒷받침한 정치세력은 노론이었는데, 1721년과 1722년에 일어난 신임사화는 연잉군이었던 영조와 노론 측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사건이 해결되고 영조가 왕위에 오르자, 신임사화와 관련된 일들은 서적으로 간행되어 통치기간 동안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는 정치적 동향과 중앙관서 서적 출판의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서 1755년에 간행된 『천의소감(闡義昭鑑)』과 그 언해본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그 내용은 경종 1년(1721)과 그 다음 해에 왕세제 책봉과 관련하여 일어난 신임사화에서부터 영조 31년(1755)에 발생한 나주 패서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역모와 정치적 사건을 기록하여 영조정권의 정당성을 밝혀놓은 것이다. 이 책은 영조의 명에 의해 1755년에 완성하였고 언해본까지 만들게 된다. 또한 인쇄기술사적으로 볼 때 금속활자인 무신자(戊申字)로 인쇄되었으며, 인쇄과정을 담고 있는 의궤(儀軌)가 남아 있어서 서지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의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영조대에는 무신자·운각인서체자·현종실록자 등의 금속활자를 비롯하여, 관상감목활자·사역원목활자 등의 목활자도 사용되었다. 이들 활자

는 중앙관청의 서적을 편찬하는 데 이용되었다. 사찰, 문중, 서원 등에서는 주로 목판을 이용하여 서적을 인쇄하였는데, 이 또한 당대 학문의 흥성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서적의 편찬은 영조대의 사회, 정치, 문화의 발전을 아우르는 결과물로서 다음 왕조인 정조대의 문화기반이 되었다.

이 연구는 영조대에 편간된 서적 중에 『천의소감』과 그 언해본의 간행과정과 서지적 특성에 대한 검토를 1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천의소감』과 그 언해본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물로는 언해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전체 편찬과정과 현전본을 언급한 해제¹⁾, 언해본 간의 이본(異本) 비교를 통하여 이본 간 언어사실의 차이를 기술한 연구가²⁾ 진행된 바 있다. 이들 연구는 이 책의 국어학적인 특성과 간행에 관한 종합적 이해에 도움이 된다. 또한 주요 소장처에서 간략 해제한 것³⁾과 조선시대 찬수청에 대한 분석연구에서 '천의소감찬수청'을 다룬 연구가⁴⁾ 있다.

이 글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서지적 특성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미한 사실을 파악해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 『천의소감』과 그 언해본에 대한 서지적 분석을 그 편찬과 간행 과정으로부터 진상(進上)과 반사(頒賜), 그리고 이후의 번각본 간행 경위와 언해본 간행에 관한 사항까지를 세밀히 고찰하여 서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지학을 기반으로 한 문화사적 연구의 바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II. 『천의소감』의 간행과정과 편집체제

1. 간행과정

1) 찬수청의 설치와 편찬

『천의소감』의 간행은 영조의 편찬지시가 있은 후 찬수청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찬수청의 설치는 원경하(元景夏)와 원인손(元仁

1) 홍윤표, 「闡義昭鑑諺解 解題」, 『闡義昭鑑諺解(筆寫本)』 影印本(弘文閣, 1983)

2) 정승칠, 「闡義昭鑑諺解의 異本 比較」, 『奎章閣』 13집(1990) 39-58쪽.

3)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 등의 고서해제에 주로 수록된 내용이다.

4) 김정미, 「朝鮮時代 撰集廳·纂修廳 研究」, 석사학위논문(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孫)의 의견에⁵⁾ 따른 것으로, 영조 31년(1755) 6월 1일 책의 제목을 ‘천의리 편감(闡義理編鑑)’으로 정하였다가 후에 ‘천의소감(闡義昭鑑)’으로 바꾸었다.⁶⁾ 책의 명칭과 관련한 논의는 같은 해 7월 25일에도 있었다. 형조판서 조명리가 ‘천의보감(闡義寶鑑)’을 추천하였으나 그 뜻이 타당하지 않아 채택하지 않았고, 다시 정휘량이 ‘천의소감(闡義昭鑑)’을 추천하여 영조의 제가를 얻음으로써 ‘천의소감’으로 정하게 되었다. 영조는 이날 책의 구성을 3권으로 꾸밀 것과 언해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본격적인 언해본의 편찬지시가 있기 전에 이미 언해를 염두에 두 것으로 파악된다.⁷⁾

이 책을 찬수하고 작성된 『천의소감찬수청의궤』⁸⁾(이하 『의궤』로 약칭 함)에는 책의 간행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일반적인 편찬·간행 관련 의궤와는 달리 찬수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서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찬수청 관원의 좌목이 찬수와 교정 당낭청으로 나누어 실려 있으며, 동원된 원역(員役) 명단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 밖에도 소용물품, 인쇄방식 등 인쇄와 관련된 기록이 담겨 있어서 중앙관찬의 인쇄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의궤』의 본문은 영조 31년(1755) 6월부터 12월까지 작업을 위한 관원 차출 등의 준비과정과 관련된 「계사질(啓辭秩)」과 찬수의 대략적 과정과 관련 사실, 진상과 반사내역, 상전(賞典) 등의 내용을 담은 「거조질(舉條秩)」이 실려 있다. 또한 책을 찬수하고 간행하면서 다른 관청과 주고받은 문서를 「이관질(移關秩)」, 「내관질(來關秩)」, 「감결질(甘結秩)」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의궤』의 기록에 따르면, 영조 31년(1755) 6월 1일 찬집청 도제조 3인과 당상 14인, 낭청 20인, 도합 37인이 찬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21일 찬수청을 없애라는 명이 내려지기도 하였고 그 다음날 다시 설치되면서 도제조와 당상의 인원이 달라지기도 하였다.⁹⁾

5) 『영조실록』 31년 9월 14일.

6) 『영조실록』 31년 6월 1일.

7)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7월 25일. “[…] 上曰, 闡義理好矣 明履曰 闡字乃用力字 義理自然明快 何必用力耶 輿良曰 稱以義理錄如何 明履曰 稱寶鑑 似好矣 上曰 不穩矣 輿良曰 昭鑑 似好矣 上曰 然矣 當爲幾卷耶 明履曰 當爲三卷矣 上曰 必將費予親自刪潤矣 勘亂錄則無味 而此則諺譯 亦可觀矣 [...].”

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奎14206)

9) 『영조실록』 31년 9월 21일, 9월 22일.

찬수청을 없애고 다시 설치한 것은 신하들 사이는 물론, 영조와 신하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편찬에 참여한 대신과 당상 및 낭청의 명단은 『천의소감』 권말(卷末)의 봉교찬수제신조(奉敎纂修諸臣條)에도 보인다. 도제조는 김재로·이천보·조재호이며, 당상관은 지중추부사 원경하, 이조판서 신만, 지중추부사 홍계희, 병조판서 홍봉한, 예조판서 이정보, 지사 서종급, 행부직 서명빈, 우참찬 조영국, 공조판서 이성중, 형조판서 조명리, 공조판서 정희량, 행부사직 남유용, 권상일, 오수채, 남태제, 부사과 이양천, 장악원정 홍명한, 집의 서명웅, 부사과 황인겸, 이최중, 송문재, 이길보, 홍인한, 홍경해, 남태저, 지평 원인손, 부사과 이성경, 병조정랑 서명천, 교리 정상순, 수찬 홍준해, 교리 조엄, 부사과 정광한, 윤득우, 사서 정존겸, 지평 이세택, 부사과 이상윤까지이다.¹⁰⁾ 이 중에 당상관으로 신만·이정보·서명빈·남태제는 혁파 후 다시 설치된 찬수청에 차출된 관원이다. 특히 홍계희(洪啓禧)와 홍인한(洪麟漢)은 『의궤』의 명단에 있고 『천의소감』의 권말에도 수록되었지만 역안(逆案)에 이름이 오르거나 사사(賜死) 되었기 때문에 후에 『의궤』에서 그 성명을 삭제한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찬수청 관원과 이 일에 동원된 원역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의궤의 구성에서도 드러나듯이 『천의소감』의 찬수를 위하여 그 역(役)을 크게 찬수와 교정으로 구분한 것을 알 수 있다. 찬수청의 장소는 처음 형조와 공조로 정했는데 궁원도감을 형조에 설치하게 되면서 예조 중추부에 이설¹¹⁾하였다. 그 후 다시 형조로 옮겼던 것을 형조의 계복문서 수정으로 인하여 다시 전의감(典醫監)으로 이설하였다.¹²⁾

편찬에 쓰인 참고 자료는 6월 1일 찬수청 관원들이 임명된 후 서적 찬수에 이용된 것들로, 승정원에 올린 경종 1년(1721) 겨울 국안(鞠案)을 비롯한 각 연도의 국안, 의금부 추안(推案), 경종 1년에서 2년까지의 『춘방일기(春坊日記)』, 숙종 46년(1720) 이후의 『승정원일기』 등이다.¹³⁾

찬수과정을 자세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영조 31년(1755) 9월 15일

10) 『蘭義昭鑑』, 卷末 奉敎纂修諸臣.

11) 『천의소감찬수청의궤』 「계사절」 6월 4일.

12) 『천의소감찬수청의궤』 「계사절」 9월 15일.

13) 『천의소감찬수청의궤』 「계사절」 6월 1일, 6월 4일, 9월 15일.

중초가 완성¹⁴⁾되었으며, 11월 5일 전에 찬수가 완료되어 인출을 위해 찬수청을 교서관으로 이설한 것으로 확인된다.¹⁵⁾

표1-천의소감 찬수청 관원 및 원역 명단¹⁶⁾

찬수청 직명	성명	인원수
都提調	領中樞府事 金在魯, 領議政 李天輔, 右議政 趙載浩	3원
堂上	知事 元景夏, 吏曹判書 申晚, 知事 洪啓禧, 兵曹判書 洪鳳漢, 禮曹判書 李鼎輔, 知事 徐宗伋, 行司直 徐命彬, 右參贊 趙榮國, 知事 李成中, 刑曹判書 趙明履, 工曹判書 鄭翬良, 行副司直 南有容, 權相一, 吳遂采, 南泰齊	14원
郎廳	副司果 李亮天, 掌樂院正 洪名漢, 執義 徐命膺, 副司果 黃仁儉 李最中, 宋文載, 李吉輔, 洪麟漢, 洪景海, 南泰著, 元仁孫, 李星慶, 兵曹正郎 徐命天, 校理 鄭尚淳, 修撰 洪準海, 校理 趙曠, 副司果 鄭光漢, 尹得雨, 司書 鄭存謙, 持平 李世澤, 副司果 李尚允	20원
算員	李景洽	1인
書吏	韓壽明, 林枝歲, 朴震郁, 洪仁澤, 李廷馳, 邊聖輝, 鄭基錫, 金啓郁, 宋廷煥, 李世大, 朴弘得, 金泰鼎, 池達源, 張德年	14인
書寫	韓天植 외 1명	2인
庫直	金友樞, 南應福	2인
使令	咸德柱 등 15명	15인
軍士	莫金(마쇠) 등 5명	5인
校正堂上	吏曹判書 申晚, 知事 李最中	2원
校正郎廳	副司果 黃仁儉, 副校理 南泰著, 副司果 元仁孫, 校理 鄭尚淳, 趙曠, 副司果 尹得雨	6원
算員	李景洽	1인
寫字官	洪, 鄭周	2인
畫員	金省五	1인
唱準	鄭壽仁, 池明瑞, 金, 李	4인
書吏	朴震郁, 鄭基錫, 李世大	3인
庫直	高昌胤	1인
書寫	韓天植	1인

2) 인출(印出)과 언해서(諺解書) 편찬

한문본 『천의소감』의 인쇄시점이 영조 31년(1755) 11월이라는 사실은

14) 『천의소감찬수청의궤』 「계사질」 9월 15일.

15) 『천의소감찬수청의궤』 「감결질」 11월 5일.

16) 김정미, 앞의 논문, 87쪽.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의궤』 등에 수록된 간행기록과 반사본(頒賜本)에 남아 있는 내사기(內賜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영조 31년(1755) 11월 7일 교정당상 신만(1703-1765)이 교서관의 인출장(印出匠)이 6명뿐이므로 관상감 인출장 2명을 사역하게 해달라고 주청하였고, 같은 날 이성중은 『천의소감』의 간인이 끝난 후 중초한 책과 일기 등을 세초(洗草)할지의 여부를 묻고 어필로 첨삭한 곳까지 일체 세초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는다.¹⁷⁾ 이는 영조가 친히 1차 편집본 교정을 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기록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당시 교정당상과 낭청이 인출과정까지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발문의 작성은 남유용¹⁸⁾이 맡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영의정 이천보는 그에게 글씨도 쓰게 하기를 주청하였지만 신만이 주자(鑄字)로 할 것을 권하여 결국 주자로 인쇄하였다.¹⁹⁾ 실제로 『천의소감』의 남유용 발문은 본문과 같은 금속활자인 무신자로 인행되었다.

그해 11월 20일에는 인출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6월 1일 찬집청 설치부터 인출이 완료된 11월 20일까지 모두 5개월이 소요되었고, 책의 인출은 찬수가 완료된 11월 5일을 기준으로 볼 때 20일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출 건수는 350여 건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반사할 건수를 정하기 위하여 영조와 상의할 때 350여 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실제로 진상용 5건과 반사용 341건이라는 기록이²⁰⁾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쇄한 기간은 매우 짧았지만 인쇄를 위한 준비는 7월 3일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찬집청에서 인출에 필요한 철우리(鐵于里), 동인찰(銅印札) 등 각종 물력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고²¹⁾, 11월 5일에는 출초(出草)와 어제정서(御製正書), 인출초견(印出初見)과 재견(再見), 대교정정,

17)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11월 7일. “晚曰 閨義昭鑑印役 十分緊急 而芸館印出匠 只有六名 事甚苟艱 觀象監印出匠二名 使之移送 以爲使役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成中曰 昭鑑印役畢後 中草冊及日記等冊 何以爲之乎 上曰 並洗草 可也 成中曰 其中草冊一件 有御筆添削處 此則何以爲之乎 上曰 一體洗草 可也.”

18) 남유용은 천의소감찬집청의 당상관으로 비변사제조, 예문관제학, 병조참판, 세자좌부빈객, 대사헌, 대사성을 거치고, 1757년에는 원손(정조)의 사부가 되어 호피(虎皮)를 하사받기도 하였다.

19)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11월 7일. “天輔曰 跋文南有容已製來 而南有容亦能善寫 使之因書 何如 上曰 因使之寫進 晚曰 自前此等文字 以鑄字爲之者多矣 上曰 然則以鑄字爲之無妨矣 上曰 跋文讀之 成中 讀訛 上曰 善矣.”

20) 『천의소감찬수청의궤』 「甘結秩」 11월 5일.

21) 『천의소감찬수청의궤』 「甘結秩」 7월 초3일.

부족자 보주, 어제윤음과 어필모사에 이르는 일련의 인출과정을 보여주는 감결이 발급되었다. 이어서 11월 20일에는 진상건(進上件) 도첩(搗砧) 이, 11월 24일에는 책 제목의 서사(書寫)가 이루어짐으로써 인쇄는 마무리 되었다. 표2는 『의궤』의 기록을 바탕으로 기록순서에 따라 작업공정을 보이는 문서의 내용을 그 용도와 소용물품으로 구분하여 작성해본 것이다.

표2-『의궤』의 기록순서에 따른 간행과정과 소용물품

감결(甘結) 발급일	용도	所入(所用)
① 1755.7.3.	冊子印出所入	半眞墨 3丁, 黃筆을 만들기 위한 지루용 대나무를 갖춘 黃毛 10, 炭, 阿膠
② 1755.7.3.	鐵于里 銅印札 12板 所入物力	(형태가 좋지 못하여 11월 5일자 감결에 크고 긴 것 50개를 보내도록 호조에 요청함)
③ 1755.7.3.	冊子印出時 冊板鐵亏里	鑄鐵 3斤 4兩, 鎏鑄 6兩 3錢, 炭 6斗 5升
	亏里板 4板	每板 松板 길이 1尺 6寸
	冊版 12板	每板 朴只 1寸, 頭丁 12介(합 144介)
④ 1755.7.3.	冊子正書次	黃筆 10柄, 眞墨 5丁
	洗補 所用	厚白紙 2卷, 朱紅墨 2丁
⑤ 1755.11.5.	出草	白紙 5卷
	御製正書	黃筆 2柄, 眞墨 1丁
⑥ 1755.11.5.	御筆模寫	雪花紙 2卷, 眞油 2合
	進上 5件(進上 3件, 慈殿封進 1件, 世子宮進獻 1件)	每件 草注紙 5卷(합 25卷)
⑦ 1755.11.5.	頒賜件(五處史庫, 政府, 中樞府, 六曹, 政院, 弘文館, 藝文館, 侍講院, 三都八道 及宗親文武二品以上 文臣實職軍, 御侍從臣以上, 武臣曾經閫帥以上)	楮注紙 1,300卷
	粧衣	黃染草注紙 5卷
⑧ 1755.11.5.	初再見 2件	白紙 各5卷
	大校正見 2件	厚白紙 各5卷
	進上 5件, 頒賜 341件 每件 共3冊式 印出	半眞墨, 黃蜜, 生熟麻, 尾簾, 馬璧, 填空白休紙, 填空竹陶東海, 墨方文里
	冊子印出時 均字所用	均刀 7介, 執鉗 7介
⑨ 1755.11.5.	校正房, 校正	校正房溫突木 10丹, 磻朱紅 2兩, 朱筆 5柄, 朱沙鉢 3立, 校正 白筆 3柄, 櫈牀 4坐, 濕紙板 2立

표2-계속

감결(甘結) 발급일	용도	所入(所用)
⑩ 1755.11.5.	鑄字	鑄鐵 5斤, 鑄成炭 8斗, 黃楊木 3介
	御製御筆模寫 井間	朱紅墨 1丁, 畫筆 2柄
⑪ 1755.11.5.	寫字官 所用	黃筆 2柄, 眞墨 2丁
	補字官 所用	筆墨 每10卷
	冊板(不足分)	銅印札 40介
	闡義昭鑑進上進獻 合 5件 每件 共3冊 每冊粧縛所入	面紙次 草注紙 1張式, 空隔次 草注紙 1張式, 後精 楷注紙 2張式, 紅真絲 4分式, 膠末 3合式 黃蜜 3分式
⑫ 1755.11.5.	頒賜341件 每件 共 3冊式 每冊粧縛所入	面紙次 楷注紙 1張式, 後精次 厚白紙 2張式, 紅真絲 3分式, 膠末 2合式, 黃蜜 2分式
	褙板次	椴板 2立
	爆乾次	身竹 3介, 膠篩布 3尺, 手巾紗 2尺, 馬尾篩 2部
	歸也次	家猪毛 4兩
⑬ 1755.11.5.	御製綸音御筆模寫 및 堂上郎廳座目刊本	自作板 14立, 雄尾里 1臺, 麻布 3尺, 膠末 1升, 煉炭 1斗, 5寸丁 20介, 家猪毛 3兩, 延日礪石 1塊, 强礪石 1塊, 臺床 2坐, 鐙子鐵 2介, 木賊 2箋, 陶罐 1部, 魚膠 半張, 爐炭 1斗, 小木 半丹, 鹽 1升
⑭ 1755.11.20.	闡義昭鑑進上件 捣砧	白休紙 1斤, 紅木祫 3件, 油菴 3浮, 小索 3艮, 衣草席 3立, 架子 3部
⑮ 1755.11.23.	闡義昭鑑冊子印出時 改張及不足所入	厚白紙 250卷
⑯ 1755.11.24.	闡義昭鑑進上 冊題目書寫	黃筆 2柄, 眞墨 1丁

한편 한문본 『천의소감』의 간행이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언해서 편찬 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영조 31년(1755) 11월 7일에 언해번역서를 만들면 『감란록(戡亂錄)』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임금의 뜻²²⁾에 따라 언해서의 편찬에 대한 명(命)이 있었으며 이후로 번역이 시작되었고, 출초(出草), 정서(正書)를 위한 물품의 조달과 대왕대비전에 진상할 『천의소감』 언서(諺書) 번역 시에 정서를 위하여 4인을 대령시키라는 기록²³⁾, 장황을

22)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11월 7일.

23) 『천의소감찬수청의궤』 『감결질』 11월 24일. “一右甘結 大王大妃殿進上闡義昭鑑諺書

위한 재료의 취용내용²⁴⁾, 천의소감언해서를 장황하는 데 들어가는 언해서 4권의 표지, 면지, 후배지 등의 재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한글글씨를 쓴 4인은 어의궁(於義宮) 담당 송규빈(宋奎斌) 형제, 제용감(濟用監) 서원(書員) 이유담(李惟聃), 옥당(玉堂) 서사(書寫) 유세관(柳世寬) 등이었다.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필사본(筆寫本)『천의소감언해(闡義昭鑑諺解)』가 현재 이 기록에 가장 가까운 유물로 보여진다. 당시에 제작한 자료로서 기록과 일치하는 책일 경우 서예사적인 측면에서도 정확한 서사의 시기와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는 셈이다. 또한 이 당시 대왕대비는 숙종의 비인 인원왕후(仁元王后, 1687-1757)임을 알 수 있다.²⁵⁾ 인원왕후는 경종 즉위로 왕대비가 되었고 다시 영조가 즉위하자 대왕대비가 된 인물로, 경종 1년에 영조를 왕세제로 등극시키고 연잉군이었던 영조가 후에 임금으로 등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언해서가 편찬되고 특별히 대왕대비전에 진상하는 책이 마련된 것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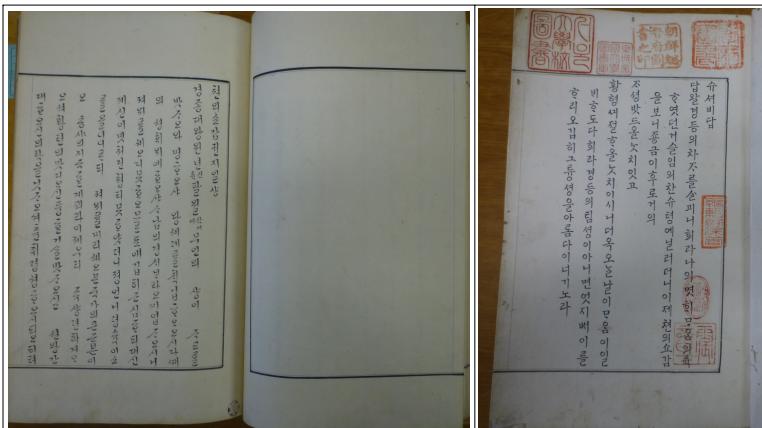


그림1-규장각 소장의 필사본 『천의소감언해』

飭易時 出草次白紙五卷 正書次楮注紙六卷 黃筆五柄 真墨二丁等 進排爲乎矣 萬一遲晚
甘罪不辭 戶曹 工曹 長興庫。”

24) 『천의소감찬수청의궤』 「감결질」 12월 1일.

25) 언해 필사본의 작성대상인 대왕대비가 인원왕후인 것에 대한 배경적 논의는 발표회에서 지정토론을 맡은 전경복 선생님과 당시 정치적 상황을 발표한 김백철 선생님의 자문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언해 필사본은 영조 31년(1755) 12월 5일에 책 제목 서사가 완료되어 진상됨으로써 모든 제작과정이 완료되었다. 표3은 『의궤』의 기록을 바탕으로 언해본의 제작과정을 구분하여 작성해본 것이다.

표3-대왕대비전 진상 필사본 『천의소감언해』 제작과정

제작과정	날짜	수신기관 및役 담당자	소용물품
① 제작지시, 번역	1755.11.7.		
② 出草, 正書	1755.11.24.	戶曹, 工曹, 長興庫 於義宮擔當 宋奎斌兄弟 濟用監書員 李惟聃 玉堂書寫 柳世寬	出草用: 白紙 5卷 正書用: 楷注紙 6卷 共用: 黃筆 5柄, 真墨 2丁
③ 裝幀 재료취용 및 裝幀	1755.12.1.	戶曹, 工曹, 義盈庫, 長興庫, 豐儲倉, 濟用監, 繕工監, 禮賓寺	表紙: 黃染草注紙 半張씩 面紙: 草注紙 1張씩 後梢紙: 楷注紙 2張씩 紅真系 4푼씩, 黃蜜一分씩, 膠末 1홉씩, 黃染水 1도. 紅函 1部, 紅綬 5幅, 甲祫 1件 등
④ 册題目 書寫 및 재료취용	1755.12.4.	戶曹, 工曹	黃筆 1柄, 真墨 1丁
⑤ 완료 및 進上	1755.12.4-5		

3) 진상(進上)과 반사(頒賜)

책의 인출을 마친 다음에는 진상하고 반사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다. 반사할 건수는 처음에 350여 건으로 정하여 품의하였으나 영조가 이 건수가 너무 많다고 하자 이천보가 다시 200건을 인출하여 승정원에 분부하여 반사하게 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홍봉한이 이 일은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하여 처음에 정한 대로 350건이 인출되었다.²⁶⁾

『천의소감』의 진상과 반사 내역을 살펴보면 진상 3건, 자전(慈殿) 봉진(封進) 1건, 세자세자궁 진헌(進獻) 1건, 사고 5곳과 의정부, 중추부, 육조,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시강원, 3도 팔도 및 문무 이품 이상인

26)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11월 26일. “喆輔曰 閨義昭鑑 今當頒賜 而不繁處多矣 上曰 將爲幾件耶 晚曰 三百五十餘件也 上曰 過多矣 晚曰 外方必皆印去 而亦多有送紙請印之士民 自可以廣布矣 天輔曰 印出二百卷 出付政院 使之頒賜 何如 洪鳳漢曰 自政院分等以給 尤爲難便也 上曰 當見單子而處之矣 天輔曰 取捨若難 則依前定數 亦無妨矣.”

종친, 실직군인 시종신 이상의 문신, 병사(兵使)와 수사(水使)를 역임한 무신 이상에게 반사할 것을 전교하였다.²⁷⁾ 그리고 음관이라도 당상 이상의 실직 및 사관으로 찬수당청을 거친 자에게 반사하였으며, 판본(板本)은 사각(史閣)에 보관할 것을 명하였다.²⁸⁾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참고하면 실제로도 진상용 5건과 반사용 341건이 인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²⁹⁾ 그리고 도내 각 읍 각 역에 명하여 종이와 공가(貢價)를 교서판에 지급하고 간인해 가도록 알릴 것을 8도와 3도에 이문하였다.³⁰⁾

앞서 언급한 대로 대비전에는 『천의소감』을 번역하여 서원(書員)과 서사(書寫)가 정서한 후 장황하여 4권을 진상했으며, 『천의소감』을 진상 할 책의 제목은 사자관인 정종주(鄭宗周)와 조덕준(趙德俊)이 썼다.³¹⁾ 그리고 서적의 인출이 모두 끝난 후 중초책과 일기 등은 어필로 첨산(添刪) 된 곳이 있더라도 모두 세초(洗草)하도록 하였다.³²⁾

한편 영조 31년(1755) 11월 26일에³³⁾ 『천의소감』을 반사하는 날에 영조는 찬수당상과 낭청을 불러, “성의를 다하여 찬수하였으니 공이 의를 밝히는 데 있다”는 의미로 ‘갈성찬수공존천의(竭誠纂修功存闡義)’와 16자로 철권을 대신한다”는 ‘일십육자이대철권(一十六字以代鐵券)’을 써 서 판각하고, 찬수 당상과 낭청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렸다. 영조는 16자를 친서하여 탁지로 하여금 간인하게 하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안보하게 한 후에 특별히 찬집청 당상과 낭청에 하사하였다. 간인한 2건은 내입하고, 1건은 동궁에 들이고,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5곳의 사고에 각 1건씩 보관하고 판본은 사각에 보관하게 하였다. 규장각에는 이때 만들어진 16자 철권의 탁본 실물로 5처 사고 중의 하나인 오대산 사고에 보관했던 것이 남아 있다.

27) 『천의소감찬수청의궤』 「거조질」 11월 5일. “闡義昭鑑印進之役 十分時急 今方始役是去乎 進上三件 慈殿封進一件 世子宮進獻一件 五處史庫 政府 中樞府 六曹 政院 弘文館藝文館 侍講院 三都八道 及宗親文武二品以上 文臣實職軍 御侍從臣以上 武臣曾經閫帥以上判頒事 傳教敎是置.”

28) 『천의소감찬수청의궤』 「거조질」 11월 5일, 11월 6일.

29)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11월 26일. “闡義昭鑑印出時 [...] 上五件 頒賜三百四十一件 每件共三冊式印出時所入 [...]”

30) 『천의소감찬수청의궤』 「이문질」 11월.

31) 『천의소감찬수청의궤』 「감결질」 11월 24일.

32) 『천의소감찬수청의궤』 「거조질」 12월 7일.

33)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11월 26일. “承旨進前 仍命書之曰 十六字親書 以下令度支刊印 政院安寶 特賜纂修廳堂郎 其命勿謝 二件內入 一件入于東宮承政院弘文館藝文館五處史庫 各藏一件 板本藏于史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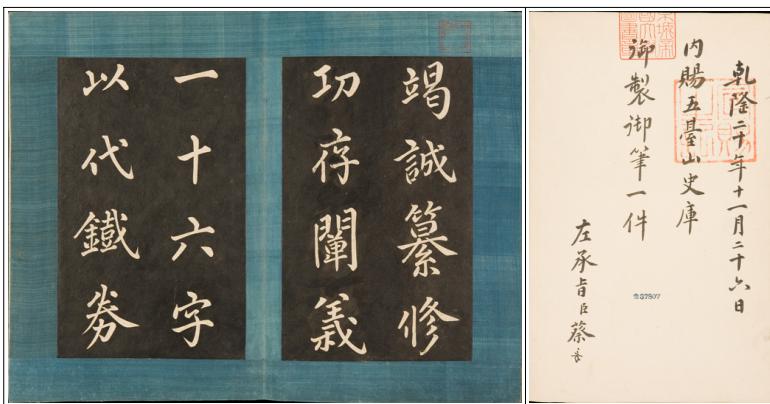


그림 2- '어제어필(御製御筆) 십육자철권(十六字鐵券)'의 탁본과 내사기

『천의소감』의 모든 작업이 완료된 12월에는 찬집청 관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는데 그 내역은, 친수청 도제조 영부사 김재로, 영의정 이천보에게 각각 숙마(熟馬) 1필을 면급하고 우의정 조재호에게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였다. 5월에 임명을 계하한 날로 11월에 이르기까지 당상 6원에게 각 숙마 1필, 추후 계하(啓下)한 당상 9원에게 각 반숙마 1필을 사급하였으며, 또 같은 기간에 사진한 낭청 3원과 낭청 조엄·정광한·윤득우·정존겸에게 각 반숙마 1필을, 흥명한·이최중·홍경해에게 각 상현궁 1장을 사급하였다. 녹사 이하의 원역하인 등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미포(米布)를 제급하게 하였다.³⁴⁾

4) 한문본 번각과 한글본의 간행

『천의소감』은 활자본의 간행 이후에도 다시 번각하여 간행하였다. 한문본과 함께 언해본도 목판본(木版本)으로 간행되었는데, 『천의소감』의 경우 서지적으로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처음에 『천의소감』의 번각에 관한 논의는 활자본 간행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영조 32년(1756) 6월 16일³⁵⁾ 홍봉한이 『훈서언해』와 함께 『천의소감

34) 『천의소감찬수청의궤』 「거조질」 12월 14일.

35)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6월 16일. “洪鳳漢曰 訓書諺解印出 似好矣 且闡義昭鑑諺解 不可不同爲印出矣 天輔曰 重臣所奏誠好矣 尚魯曰 不可不俱出刊印 諺解印板 使八道印出 似好矣 上曰 昭鑑解出 豈不張大耶 凤漢曰 使愚夫愚婦 皆能明知義理之道 莫如詳出解本矣 尚魯曰 一儒臣 獨當此役似難 使吏判照檢 儒臣不可不加出矣 上曰 鄭存謙可合此事矣 為人甚美矣 上以承旨書之曰 訓書諺解刊印 內入進獻 一依原本舉行 又命承旨書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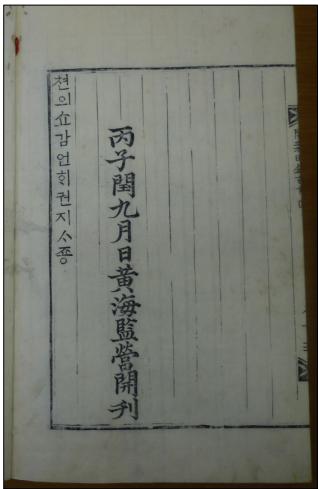


그림3-『천의소감언해』 황해도
김영본의 권말간기(규장각 소장)

언해』 인출하기를 건의하면서 시작된다. 흥봉한은 특히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의리의 도를 명백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상세히 언해본을 내는 것만 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영조는 『천의소감』과 그 언해본을 운각으로 하여금 8본을 인출하게 하고, 그중 7본은 경기도 외 7도에 내려보내 그것을 번각하게 하고, 1본은 남한산성에 내려보내 일체 거행하여 간인한 후 각 1건씩을 봉진하게 하라고 하였다. 즉, 교서관에서 활자로 8본을 먼저 인출 하여 7도와 남한산성에 내리고 그것을 번각하여 목판본으로 제작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그로부터 약 보름이 지난 영조 32년(1756) 6월 30일에³⁶⁾ 『천의소감』의 번각과 언해번역의 경과를 점검하고 『천의소감』 판본의 보관처를 사고 (史庫)가 아닌 별도의 창고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또한 이날 또 명하기를³⁷⁾ “다시 생각해보니 『천의소감』의 원본은 팔도삼도(八道三都)에 이미 하사본이 있으니 경비를 아끼기 위해 다시 간인할 수 없으니 7도와 남한산성에 분부하여 그 하사본을 번각하되 그중에 모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만 모각하고 그 판본은 더럽게 두지 말고 궤자에 담아서 보관하게 하라”고 하고, 운각은 언해만을 거행하여 자전진상 1건, 내입 5건, 중궁전 1건, 진현 3건, 빈궁 1건을 거행하라고 하였다. 즉, 6월

曰 閨義昭鑑具諺解 令芸閣印八本 其中七本 京畿外下七道 其令翻刻 一本下送南漢 一體舉行 而刊印後 其令各一件封進.”

36)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6월 30일. “上曰 昭鑑印役 何以爲之耶 命膺曰 式例役訖後當始之矣 上曰 翻諺已訖耶 命膺曰 舊諺解亦好 不過略干增刪矣 仁孫曰 昭鑑板本 臣意則藏之史庫 似好矣 城輔曰 臣向見元景夏 其言亦如此矣 上曰 儒臣之意則 何如 命膺曰 承宣所達 其在尊事體之道 誠爲尤當 而一置史庫之後 印出亦難 板本藏之別庫 似好矣 上曰 儒臣之意 何如 存謙曰 嚴秘之道 似當藏之別庫矣 城輔曰 深置史庫 似難廣布矣 上曰 秘之則是豈廣布之意耶 存謙曰 臣所謂秘者 非秘諱之秘也 卽所謂尊閣之意也 上曰 藏于名山 與置之別庫 執勝耶 城輔曰 別爲立庫以藏之 似好矣 上曰 此言誠好矣.”

37)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6월 30일. “又命書之曰 更思之 昭鑑元本 八道三都 既有賜本 其在惜費之道 不可復印 分付七道南漢 以其本翻刻 其中不可不摸者摸刻 而其板本 勿爲製置 盛櫃子而藏焉 芸館具諺解舉行 慈殿進上一件 內入五件 中宮殿一件 進獻三件 嫫宮一件舉行事 分付.”

16일에 명한 대로 실행할 것이 아니라, 활자본으로 8도 3도에 이미 반사된 한문본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번각하고 언해본만 교서관에서 간행하여 진상할 것을 명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7월 27일에³⁸⁾ 『천의소감』이 거의 완성되어 제목을 쓰지 말고 2건을 장황하여 들이도록 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 한문본의 번각본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글본은 그 후에 명확한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한문본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활자본으로 완료되고 활자본을 바탕으로 각 지방에서 번각하여 간행하고 책판을 보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천의소감』의 편집체제

『천의소감』의 편집체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영조 31년 (1755) 편찬된 4권 3책(권수(卷首)를 1권으로 치면 5권 3책이 된다)의 간본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권수는 일부가 목판본이고 나머지는 목활자가 일부 혼입된 금속활자본이다.

이 책의 구성체제를 책차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권수와 본문의 권1을 담고 있는 제1책에는 목판본으로 영조의 비답을 판각한 수서차비(手書箚批), 신만(申晚)이 봉서(奉書)한 유음(諭音)인 어제유찬수제신(御製諭纂修諸臣), 남유용(南有容)이 봉서한 유품(綸音)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활자본으로 진천의소감차자(進闡義昭鑑箚子), 진천의소감전(進闡義昭鑑箚)이 나오고 7조목의 범례가 수록되어 있다. 본문인 권1은 경종 1년(1721) 신축년 8월 20일에 작성된 상소로 시작되어 1723년 2월까지 조태구(趙泰耆), 최석항(崔錫恒) 등의 입시(入侍)와 그들의 목호룡(睦虎龍) 단훈(單勳) 요청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제2책에는 본문의 권2와 권3이 편집되었는데, 권2는 1724년 경종의 승하와 영조 사위(嗣位), 이공윤(李公胤)의 찬배(贊配) 등과 연이어지는 유신의 상소, 국문(鞠問)의 내용이다. 권3은 '이인좌의 난'으로 알려진 무신난(戊申亂)의 전말에 대한 간략한 기록과 경술(1730) · 경신(1740) · 을축(1745) · 병인(1746) · 무진(1748)년에 일어났던 각종 사건에 대한 추탈, 파직 등의 처결과 이를 위한 계청 등을 수록하고 있다. 제3책인 권4에는 을해년(1755) 2월의 전라도관찰사 조운달(趙雲達)의

38)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7월 27일. “傳于鄭玉曰 閨義昭鑑二件 粧縕以入 而題目則勿書.”

나주 패서에 대한 치서(馳書)로 패서에 관련되었다고 지목되는 인물들에 대한 토별령으로 각 인물에 대한 처별기록이 수록되었다. 본문이 끝난 마지막에는 남유용의 발문과 김재로 이하 39명의 봉교찬수제신(奉教纂修諸臣)의 명단이 실려 있다.

이러한 내용의 『천의소감』 구성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권수를 어제, 윤음, 차자, 전문 등으로 구성하고 범례 다음에 본문이 시작되는 방식은 왕명에 의하여 특별히 편간되는 서책에 자주 등장하는 방식이며, 후에 간행되는 유사한 성격의 서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정조 때 김종수 등이 편찬한 『명의록』이 이 체제를 따라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의록』의 구성에서 『천의소감』과 다른 점은 『명의록』이 경연일기(經筵日記)의 규칙을 따라 각 조(條)의 끝에 축조입계사(逐條立繼事)를 부가한 반면 『천의소감』은 이러한 내용이 없고 권수에 ‘수서차비(手書箚批)’를 수록한 것이다.

표4-무신자본 『천의소감』의 구성체제

구분	分卷 내용	張數	版 사항	소장처	
제1책	手書 箚批	2	木板本	장서각(춘추관), 규장각(정족산사고), 영남대, 계명대, 국립도서관	
	御製	6			
	編音	3			
	進闡義昭鑑箚子	4			
	進闡義昭鑑箋	5	金屬活字本 (戊申字)		
	闡義昭鑑凡例	1			
	卷之一	42			
제2책	卷之二	42			
	卷之三	13			
제3책	卷之四	50			
	闡義昭鑑跋	3			
	奉教纂修諸臣	3			

한편 언해서의 경우 필사본으로 제작된 것은 무신자본(戊申字本)의 편집체제와 같은 반면 목판본 언해서는 권말의 ‘봉교찬수제신’이 없고, 권말에 있던 ‘천의소감발’이 권수에 수록되어 있으며, 권수의 ‘슈서비답’이 ‘진천의소감차즈’의 마지막에 그 내용만 수록되어 있다. 또한 필사본은 본문의 권1과 권4를 상하로 다시 나눈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필사본과

목판본의 제작시점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문제로, 필사본으로 처음 제작할 때 한문본의 편집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가 배포를 위하여 간행하는 시점에는 다시 편집체제를 조정하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5-필사본 『천의소감언해』의 편집체제

구분	分卷 내용	張數	版 사항	소장처
제1책	슈서비답	1	필사본 (정서체)	규장각
	어제	4		
	눈음	3		
	진천의소감차조	4		
	진천의소감전	10		
제2책	천의소감범네	2	필사본 (흘림체)	규장각
	천의소감권지일상	43		
제3책	천의소감권지일하	15		
	천의소감권지이	52		
제4책	천의소감권지삼	17	필사본	규장각
	천의소감권지스	37		
제4책	천의소감권지스하	33		
	천의소감발	3		
	봉교찬수예신	3		

표6-목판본 『천의소감언해』의 편집체제

구분	分卷 내용	張數	版사항	소장처
제1책	어제	5	목판본 (금속활자반각)	규장각
	눈음	4		
	진천의소감차조	7		
	진천의소감전	8		
	천의소감범네	2		
	천의소감발	4		
제2책	천의소감언학권지일	76		
제3책	천의소감언학권지이	71		
제4책	천의소감언학권지삼	22		
	천의소감언학권지스	85		

III. 『천의소감』 및 언해본의 현전본과 서지적 특성

앞서 살펴본 대로 『천의소감』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금속활자본으로 완성되고, 후에 언해본, 번각본 등으로 간행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서책은 처음 필사하거나 인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각 책에 대한 서지학적 조사를 통하여 그 특징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록에 전하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원본을 확인하는 것은 그 기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원본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금속활자본(무신자본)

무신자(戊申字)는 현종 9년(1668)에 당시 호조판서와 병조판서로 있으면서 금위영의 도제조를 겸직했던 김좌명(金佐明, 1616-1671)이 군문(軍門)의 물자와 인력을 이용하여 수어청에서 동·철로 주조한 활자로, 이후 영조말기까지 100여 년간 사용된 갑인자 계열의 금속활자이다. 숙종과 영조를 대표하는 활자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책이 이 활자로 간행되었는데, 영조대 전반에 걸쳐서 관찬으로 간행된 많은 서책이 현종 실록자 또는 무신자에 의한 간본임이 확인된다.

무신자본 『천의소감』은 국내 주요 소장처 중에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영남대, 계명대, 전남대, 연세대 등에 전해지고 있다. 모두 15종이 확인되는데 이 중에 완질본은 12종이며 그중에 내사본이 7종이다. 내사본 중에 규장각의 것이 정족산사고, 태백산사고, 그리고 예문관에 반사된 것이고, 장서각본에는 춘추관에 반사된 것이 남아 있다. 개인에게 반사된 것으로 부사과(副司果) 이세태(李世泰)에게 내린 것이 영남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국립도서관 소장본 중에 시강원 서연관(書筵官) 이양원(李養源)과 부사과 민백행(閔百行)에게 내린 것이 남아 있다. 모두 같은 날짜(1755년 11월 26일)에 반사되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의궤』나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있는 반사 날짜와 일치하고 341건의 반사대상 범주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무신자본으로 완질이 남아 있는 소장처로 시강원 장서인이 날인된 장서각본과 국립도서관, 계명대, 연세대 등의 소장본이 있고,

낙질본으로 2책만 남아 있는 전남대본과 1책만 남은 규장각본·국민대본 등이 있다.

참고로 표7은 『천의소감』이나 그 언해본을 수록한 조선시대 서목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까지 1792년경에 작성된 『서서서목첨록』, 1800년대 초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보문각책목록』, 1860년대에 작성된 『서고장서록』, 1815년 작성된 『서책목록』, 1905년 『춘방장서총목』 등에서 『천의 소감』과 그 언해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서서목첨록』에 수록된 『천의소감』과 『천의소감언해』가 『서고장서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서고장서록』에 수록된 것은 현재 규장각 소장본의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아울러 『춘방장서총목』에 수록된 1절 3책의 『천의소감』은 현재 장서각에 ‘시강원(侍講院)’의 장서인이 날인된 책과 동일본일 것으로 보인다. 경상감영의 『서책목록』에 수록된 『천의소감』은 목판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서목의 비교를 통한 수록서책의 점검은 중간에 장서의 이동, 열람, 분실 등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서책에 대한 실제적 정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표7-조선시대 서목(書目)에 수록된 『천의소감』과 그 언해본의 예

서목명	작성연도	수록서명	소장처	비고
西序書目籤錄	1792	闡義昭鑑	西庫	二部各四本, 四部各三本
		闡義昭鑑諺解	西庫	五部各四本
寶文閣冊目錄	1800년대 초	闡義昭鑑	寶文閣	三卷
		闡義昭鑑諺解	寶文閣	四卷
西庫藏書錄	1860년대	闡義昭鑑	西庫	五件; 二件各四冊, 三件各三冊
		闡義昭鑑諺解	西庫	四件; 各四冊
書冊目錄	1815	闡義昭鑑	慶尙監營	五卷
春坊藏書總目	1905	闡義昭鑑	侍講院	壹帙參冊

표8은 현재까지 조사된 『천의소감』의 현존본을 요약해본 것이다. 표8의 내용은 국내 주요 소장처로 비교적 많은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 대학도서관에 한정하여 조사한 것이다.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판본이나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표8-『천의소감』의 현존본

版本	卷冊數	소장처	번호	특이사항	
戊申字本	4卷3冊	규장각	奎1177	鼎足山城 内賜本	
			奎1863	太白山史庫 内賜本	
			奎3789	藝文館 内賜本	
			古4250-97		
	2卷1冊(零本, 파손 26張)		奎26683		
			K2-298	侍講院 藏書印	
	4卷3冊	장서각	K2-297	春秋館 内賜本	
			古羅718	李世泰 内賜本	
	4卷3冊	영남대	고951.58김재로ㅊ		
	4卷3冊	국립중앙도서관	b12156-4	侍講院書筵官李養源內賜本	
			BC古朝31-93	行副司果閔百行內賜本	
			b12156-3		
木板本	3卷2冊(零本)	전남대	2A3-천68ㄱ		
	1冊(零本)	국민대	911.0563-천01ㄱ		
	4卷3冊	연세대	고서951.61천의소 인		
	4卷3冊	규장각	奎1545	丙子(1756)八月日 廣州府刊印	
			古951.053-G421c		
	4卷3冊	성균관대	B06B-0114		
	4卷3冊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1卷1冊(零本)	전북대	951.57-김재로ㅊ		
筆寫本	2卷2冊(零本)	국민대	911.0563-천01		
	5卷5冊	연세대	고서951.61천의소 판		
	4卷3冊		고서(우천) 809 0		
	4卷3冊	성균관대	B06B-0114a		
	2卷2冊	안동대	古911.058 김72ㅊ		
	4卷1冊	연세대	고서(우천) 809 0		
	1卷1冊(零本)		고서(수당) 951.61 천의소 필		

2. 목판본과 필사본

목판본은 무신자의 번각본으로 모두 8종을 확인하였다. 규장각, 연세대 등에 완질본이 각 2건씩 있고, 성균관대, 한국국학진흥원에 완질본이 각 1건씩 있다. 전북대와 국민대에는 낙질로 각 1건씩 있다. 특히 규장각의

목판본은 “丙子(1756)八月日 廣州府刊印”의 간기가 있어서 영조 32년 (1756) 6월의 간행 관련 의궤의 기록에 부합하는 책으로 의미가 있다. 각 지방에 번각의 지시를 내리고 이를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지방의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 목록으로 여러 종류가 남아 있는 각종 책판목록류(冊板目錄類)에서 『천의소감』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보았다. 이 책판목록류는 당시에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책판들을 지역별로 수록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책판 소장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천의소감』의 실제적 판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의미를 지닌다.

『천의소감』이 확인되는 책판목록은 『完營冊板目錄』, 『嶺南列邑所在冊板目錄』, 『各道冊板目錄』, 『古冊板有處攷』, 『鏤版考』 등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9와 같다.

표9-책판목록에 나타나는 『천의소감』과 언해본

책판목록명	작성연도	수록책판 내용	지역	비고
完營冊板目錄	1759	闡義昭鑑	全州	白紙 十二束
嶺南列邑所在冊板目錄	1760	闡義昭鑑	大邱	白紙 十二束
各道冊板目錄	1778	闡義昭鑑	南漢	容入紙九束十張
		闡義昭鑑 具諺解	洪忠監營	容入紙十四束七張
		闡義昭鑑 具諺解	黃海監營	容入紙十一束十四張
		闡義昭鑑	慶尙監營	容入紙十五張
		闡義昭鑑	咸鏡道 咸興	容入紙四束十八張
		闡義昭鑑大全	平安監營	容入紙四束十張
古冊板有處攷	1780년경	闡義昭鑑	京畿道廣州郡	
鏤版考	1796	闡義昭鑑, 闡義昭鑑諺解	南漢 開元寺	印紙十牒
		闡義昭鑑, 闡義昭鑑諺解	湖南觀察營	印紙十四牒七張
		闡義昭鑑, 闡義昭鑑諺解	海西觀察營	印紙十一牒十一
		闡義昭鑑, 闡義昭鑑諺解	嶺南觀察營	印紙十五牒
		闡義昭鑑, 闡義昭鑑諺解	關北觀察營	闕諺解(列缺) 印紙四牒十三張
		闡義昭鑑, 闡義昭鑑諺解	關西觀察營	印紙十二牒一張
各道冊板目錄	1840	闡義昭鑑	南漢	二張缺, 容入紙四卷五張
		闡義昭鑑諺解	南漢	容入紙七卷五張

위의 책판목록 중에 가장 정확한 기록으로 알려진 『누판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지방 감영에 목판으로 판각한 『천의소감』, 『천의소감언해』

를 8도에 내려 번각하게 한 기록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의소감언해』는 모두 4개 기관에 8종이 소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천의소감』과는 달리 그 소장본이 많지 않으며 활자본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다 면밀한 조사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목판본으로 남아 있는 언해본이 활자본의 번각본임이 드러나므로 활자본이 존재한 것은 틀림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전본을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활자로 적은 양을 인쇄하여 대부분 번각용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천의소감언해』는 규장각에 목판 완질본 4권 4책 3종과 영본 1책, 필사본 완질 1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장서각에 권수(卷首)만 별도로 엮어놓은 1책으로 된 목판본 1종이 있다. 이 외에 성균관대와 연세대 도서관에 5권 4책과 5권 5책으로 목판본을 1종씩 소장하고 있다. 규장각 소장의 목판본은 “병자(1756)윤구월일황해감영개간(丙子閏九月日黃海監營開刊)”의 간기가 있어서 영조 32년(1756) 6월의 간행 관련 『의궤』 기록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10-『천의소감언해(闡義昭鑑諺解)』 현존본

版本	卷冊數	소장처	번호	특이사항
筆寫本	4卷4冊	규장각	奎2214	
木板本	4卷4冊	규장각	奎1118	
			奎1119	
			奎5437	丙子(1756)閏九月日黃海監營開刊
	1冊(零本)	장서각	奎3233	
	1冊(30張)	성균관대	K2-294	
	5卷4冊	연세대	B06B-0115	
	5卷5冊	연세대	951.61천의소 언	

IV. 맺음말

이상과 같은 『천의소감』과 그 언해본을 바탕으로 책의 간행과정과 서지적 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기준에 이 책의 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판본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면, 『천의소감』의 현존본은 현재 12기관에 금속활자인 무신자본

15종, 목판본 8종, 필사본 4종이 전해지고 있으며, 완질의 무신자본 12종 중 내사본이 7종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 『천의소감』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은 무신자본 완질 4권3책이 4종, 영본(零本) 2권1책이 1종이며 목판본 완질 4권3책이 2종으로 모두 7종이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무신자 완질본 3종을 소장하고 있으며, 장서각은 무신자 완질본 2종을 소유하고 있다. 『천의소감언해』는 모두 4기관에 8종이 소장되어 있다. 한문본 『천의소감』과는 달리 소장본이 많지 않으며 금속활자본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어학뿐만 아니라 서예사적으로도 연구가치가 높은 규장각 소장의 언해 필사본은 영조 31년(1755) 12월에 처음 편찬되어 대왕대비전에 올린 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간행과정에서 『천의소감』이 왕명에 의해서 도감이 설치되어 간행되었다는 점은 조선시대 왕명에 의한 관찬서적, 특히 도감이 설치되어 간행된 서적의 간행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고는 『의궤』의 기록과 『승정원일기』, 『실록』 등 사서(史書)의 기록을 주로 참고하여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가 『천의소감』의 편찬·간행 연대나 판본의 계통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闡義昭鑑纂修廳儀軌』(奎14206).

김정미, 「朝鮮時代 撰集廳·纂修廳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옥영정, 「조선시대 인쇄관청의 활자인쇄 장인 연구」. 『한국문화』 47집, 2009.9.

정승철, 「闡義昭鑑諺解의 異本 比較」. 『奎章閣』 13집, 1990.

홍윤표, 「闡義昭鑑諺解 解題」. 『闡義昭鑑諺解(筆寫本)』 影印本, 弘文閣, 1983.

국사편찬위원회 <http://history.go.kr/main/main.jsp>.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search/search01.jsp>.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MAN/index.jsp>.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 <http://yoksa.aks.ac.kr/>.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영조대에 간행된 『천의소감』과 그 언해본의 간행과정과 서지적 특징을 밝힌 것이다. 『천의소감』의 현존본은 현재 12기관에 금속활자인 무신자본 15종, 목판본 7종, 필사본 3종이 전해지고 있으며, 완질 무신자본 12종 중 내사본이 7종을 차지하고 있다. 『천의소감언해』는 모두 4기관에 8종이 소장되어 있다. 국어학뿐만 아니라 서예사적으로도 연구가치가 높은 규장각 소장의 언해 필사본은 영조 31년(1755) 12월에 처음 편찬되어 대왕대비전에 올린 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간행과정에서 『천의소감』이 왕명에 의해서 도감이 설치되어 간행되었다는 점은 조선시대 왕명에 의한 관찬서적, 특히 도감이 설치되어 간행된 서적의 간행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궤』의 기록과 『승정원일기』, 『실록』 등의 기록을 주로 참고하여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기존에 이 책의 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존하는 『천의소감』과 『천의소감언해』의 편찬 간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을 밝힌 것은 앞으로의 이 분야 연구에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0. 10. 4.

수정일 2010. 11. 3.

제재 확정일 2010. 11. 15.

주제어(keyword) 천의소감(*Cheonuisogam*), 천의소감언해(*Cheonuisogameonhae*), 영조(King Yeongjo), 언해본(eonhaebon), 무신자(Mushinja), 찬수청(Chansucheong), 천의소감찬수청의궤(*Cheonuisogamchansucheonguique*), 고서(Old book)